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도마 양학선 금빛 스타트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양학선이 26일(한국시각) 런던 노스 그리니치 아레나 인근 공식 훈련장에서 도마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 남자 기계체조 대표팀 단체전 예선 출전

한국 결정적 실수 없다면 결선 진출 무난할 듯

남자 기계체조 도마의 간판스타 양학선(20·한체대)이 한국 체조의 새 페이지를 열기 위한 도약을 28일(현지시각) 시작한다. 조성동 감독이 이끄는 남자 기계체조 대표팀은 28일 오전 11시(한국시각 28일 오후 7시) 런던 올림픽파크 인근 노스 그리니치 아레나에서 단체전 예선에 출전한다. 개최국 영국, 세계최강 중국과 1조에 편성된 한국은 안마부터 시작해 링-도마-평행봉-철봉-마루운동 순으로 경기를 펼친다. 양학선을 필두로 김지훈(28·서울시청),

김승일(27·수원시청), 김수면(26·포스코건설), 김희훈(21·한체대) 5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25일 노스그리니치 아레나에서 첫 포디엄(경기장에서 실전 훈련을 치르는 것) 연습을 하고 컨디션을 조절했다. 조성동 감독은 “준비한 대로 훈련을 충실히 했다”면서 “양학선의 페이스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12개 나라가 출전하는 단체전 예선은 등록 선수 5명 중 4명이 각 종목에 출전해 상위

세 선수의 기록을 합산,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 성적이 높은 8개 나라가 결선에 진출. 1·2위, 3·4위, 5·6위, 7·8위가 6개 종목을 돌면서 나라별로 3명씩 출전에 얻은 점수를 합쳐 최종 메달 색깔을 결정한다. 13여명의 인구에서 추려내 체조 기구들만 모아놓은 중국과 개인종합의 강력한 우승 후보 에이스 우치무라 고타이를 앞세운 일본이 우승을 다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은 동메달을 목표로 잡았다. /연합뉴스

중국에는 열세이나 영국에는 박빙 우위를 보이는 한국은 결정적인 실수만 없다면 결선 진출은 무난한 편이다. 단체전은 팀 성적도 중요하나 개인전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체전에서 개인이 된 성적을 바탕으로 8명이 겨루는 종목별 결선 출전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주 종목에서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도마에서 한국 체조 52년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양학선과 개인종합 동메달을 노리는 김수면, 철봉과 마루운동에서 메달을 노릴 것으로 기대되는 김지훈·김희훈이 첫날 단체전 주 종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대표팀의 단체전 결선 진출 여부와 개인 종목별 결선 진출자의 윤곽은 29일 오전 6시(한국시각)에 결정된다. /연합뉴스

‘기적의 땅’ 웹블리로

배드민턴 이용대-정재성 자신감 증만

한국 남녀 셔틀콕 대표팀이 브루넬 대학교 훈련 캠프 생활을 접고 ‘금빛 스매싱’의 격전이 펼쳐질 런던 웹블리로 이동했다. 성한국 감독이 이끄는 배드민턴 대표팀은 2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브루넬 대학교의 스포츠클리 스포츠홀에서 오전 훈련을 끝내고 집을 꾸러 경기가 펼쳐질 웹블리 아레나 인근의 웹블리 호텔로 동지를 옮겼다. 배드민턴 경기가 열리는 웹블리 아레나는 선수촌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대회조직위원회는 배드민턴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웹블리 호텔을 공식 숙소로 지정했다. 웹블리 아레나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친숙하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의 웹블리 아레나에서 ‘프레슬림픽’으로 열린 2011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일찌감치 현장 분위기를 익혔다.

당시 한국은 남자복식의 고성현(김천시청)-유연성(수원시청) 조가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삼전기) 조가 동메달을 땀다. 공교롭게도 고성현-유연성 조와 이용대-정재성 조는 각각 결승과 준결승에서 모두 중국의 ‘막강 듀오’ 차이윈-푸하이펑(중국)에게 달미를 잡았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인 이용대-정재성 조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차이윈-푸하이펑 조와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예상돼 반드시 ‘웹블리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용대-정재성 조는 올해 3월 전영오픈 결승에서 차이윈-푸하이펑 조에 2-1 역전승을 거두는 등 영국에서 좋은 성적을 일궈내 자신감이 증만하다. /연합뉴스

한국 역대 올림픽 성적

대회명	금	은	동	순위 (참가수)
11회 베를린(1936)	1*	-	1	12(49)
14회 런던(1948)	-	-	2	11(59)
15회 헬싱키(1952)	-	-	2	12(69)
16회 멜버른(1956)	-	1	1	11(67)
18회 도쿄(1964)	-	2	1	11(93)
19회 멕시코시티(1968)	-	1	1	11(112)
20회 뮌헨(1972)	-	1	-	12(121)
21회 몬트리올(1976)	1**	1	4	11(92)
23회 로스앤젤레스(1984)	6	6	7	10(140)
24회 서울(1988)	12	10	11	4(159)
25회 바르셀로나(1992)	12	5	12	7(169)
26회 애틀랜타(1996)	7	15	5	10(197)
27회 시드니(2000)	8	10	10	12(199)
28회 아테네(2004)	9	12	9	9(202)
29회 베이징(2008)	13	10	8	7(204)

*순기(마리너) **양정모(레슬링) 자료/대한체육회

숫자로 본 2012 런던올림픽

- 3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린 횟수 3회 (1908년, 1948년, 2012년 올림픽 유치. 한 도시가 올림픽 3회 이상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
- 17 경기 개최 일 17일 (축구를 포함하면 19일)
- 26 런던올림픽 종목 26개
- 88 최고령 성취(올림픽) 기록 보유자 88명 (최고령 성취(올림픽) 기록 보유자 12세 이하 나이 88세)
- 200 올림픽 사상 인상을 위해 요양한 선수 수 200명
- 204 런던올림픽 참가 204개국
- 302 런던올림픽 메달 수여식 302회
- 10,500 런던올림픽 참가 선수단 규모 10,500여명
- 21,000 올림픽 경기장 관람객 21,000명 (게임 메이커(Game Maker) 이름 붙인 행사 관람객 70,000여명)
- 70,000 올림픽 티켓 8,000,000장
- 8,800,000 수명주기(가)는 8,800,000명 (수명주기(가)는 8,800,000명)
- 10,000,000 올림픽 개회식(가)는 10,000,000명 (올림픽 개회식(가)는 10,000,000명)
- 4,000,000,000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양궁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26일(한국시각) 올림픽 공식 양궁장인 런던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 연습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궁 단체전 ‘황금조합’을 찾아라

女 이성진·최현주·기보배 확정 ... 男 첫 공사 임동현·김범민 저울질

양궁은 과녁에 꽂힌 화살의 점수 합계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경기다. 단순히 보이는 종목이지만 자신과 상대를 치밀하게 살펴 경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는 전술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단체전에서 느끼는 긴장과 세밀한 컨디션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경기 중에 이런 변수를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단체전에서의 대표적 전술로는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도록 선수 3명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일이 꼽힌다. 한국 남녀 대표팀은 각각 28일과 29일 남

녀 단체전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현재 여자부는 이성진·최현주·기보배의 조합이 가장 유력하다. 마지막 공사로 오진혁이 버티는 남자부에선 임동현과 김범민이 누가 첫 시위를 당길지를 놓고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다. 첫 공사는 환경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고 빨리 정확하게 활을 쏠 수 있는 선수가 맡는 몫이다. 체감하는 경기장의 풍향이나 풍속 등을 후속 공사에겐 전달하고 제한시간을 덜 소모해 동료에게 여유를 줘야 한다. 아울러 고득점을 올려 상대의 기선도 제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공사는 야구에서 살 떨리는 살얼음 리드를 지켜내는 마무리 투수처럼 ‘감심장’을 지닌 선수가 낙점된다. 마지막 한 발을 남기고 10점이면 이기고 8점이면 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올림픽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다툼에 상존하기 때문이다. 오진혁은 “앞에서 10점씩을 쏘줄 터이니 나는 편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위해 필승의 10점 한 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사는 안정적 득점으로 승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경력이 상대

적으로 부족한 선수가 앞위의 도움을 받고 자 중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오선택 한국 남자 대표팀 감독은 “1~3번 선수를 조합하는 데는 선수의 특색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배는 “순서로 누가 에이스인지 가리는 개념은 아니다”며 “자연스러운 분업이 이뤄져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고 말했다. 국제양궁연맹(FITA)은 단체전에서 선수들의 발사 순서를 경기 도중에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또한 상대를 압박하거나 스스로 약점을 완화하는 전술로 활용된다. /연합뉴스

‘神弓 코리아’ 세계신 쏠까

남녀 랭킹라운드서 도전

런던 올림픽에서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을 노리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초반의 순위 결정전에서 세계기록에 도전한다. 남자부 임동현(청주시청)·김범민(배재대)·오진혁(현대제철), 여자부 이성진(전북도청)·최현주(창원시청)·기보배(광주광역시청)는 27일(현지시각) 랭킹 라운드에 출전한다. 랭킹 라운드는 선수들이 70m 과녁에 72발씩을 쏘아 득점 합계로 개인과 단체(3명)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 개인전 64강 토너먼트와 단체전 12강 토너먼트의 대진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초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 선수들은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기록 수립을 노리고 있다. 남자부 임동현은 이번 대회 경기장인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이미 강한 면모를 보였다. 작년 10월 프레슬림픽에서 72발 합계로 693점을 쏘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자신이 세운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 맑고 바람도 잔잔한 날씨가 경기 당일에도 이어진다면 기록 수립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현재 한국은 랭킹 라운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세계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임동현은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오진혁은 남자 단체전, 이성진은 여자 단체전에서 자기가 보유한 세계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연합뉴스